

농어촌 임대주택신축 '첫 삽'

진안군, 전북도·개발공사 협약 추진...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신축사업이 최근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에서 첫 삽을 떴다.
관내 농어촌지역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2월 진안군과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기반시설과 주민편익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98억원 중 20여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유한회사 제인건설이 시공을 맡은 진안 농어촌 임대주택은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 일대에 전용면적 44㎡(기존 19형) 50세대와 59㎡(기존 24형) 5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공사 진도에 맞춰 입주자 모집 공고



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조감도

는 2019년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상반기에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항로 군수는 "농어촌 임대주택 사

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종합홍보책자 '진안고원여행' 발간

여행도 영화가 되는 곳

진안의 다양한 매력 한권에 담아

진안군은 진안의 명소와 매력을 한권에 담은 종합홍보책자인 '진안고원여행'을 발간했다.
군은 1998년부터 매년 홍보책자를 발간해 왔으며, 기존 제작본의 내용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 제작하고 있다.
12.5cmX20cm 크기로 올해 새롭게 발간된 책자는 약 130쪽 분량에 전면 컬러 인쇄로 약 2천부가 발간됐다.
느리고 즐기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사진 위주로 보기 쉽게 제작해 진안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사진과 새로운 관광명소를 1년여 동안 새롭게 업그레이드했으며, 특히 올해는 테마별 분류로 구독자 편의를 도모했다.
진안고원여행에는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과 △용담호 △테마별 관광 명소(산, 강과계곡, 길, 역사문화, 꽃, 포토존, 체험) △관광코스 △축제 △

진안홍삼 △농특산물 △기타정보 등 8개 테마로 나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담은 수준 높은 사진을 비롯해 주요 명소마다 설명을 곁들여 진안에 대한 흥미와 호감도를 높였다. 특히 대한민국 홍삼특구에 걸맞게 진안홍삼에 대한 설명과 진안인삼, 홍삼한우와 진안고추, 버섯, 진안고원 막걸리 등 농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마지막 장에는 접이식 관광지도도 첨부해 한눈에 진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왔다.
군은 책자를 방문객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비치하고, 주요 관광명소와 종합관광안내소에도 비치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교류행사나 관광객 유치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육원문 기획감사실장은 "여행도 영화가 되는 아름다운 진안고원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권에 담았다."며 "이 책자가 진안을 찾는 이들에게 요긴하



진안군은 진안의 명소와 매력을 한권에 담은 종합홍보책자인 '진안고원여행'을 약 2천부 발간했다.

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군의 대표 홍보책자인 만큼 진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튼튼샘 금강발원지길 걷기행사 실시

장수군은 지난 27일 금강첫물 튼튼샘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유산

의 가치를 제고하고, 마실길 걷기를 생활화하여 개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도 지정된 금강첫물 튼튼샘생태관광지에서 진행되었다. 코스는 금강시냇물체 협관에서 출발하여 국가산립문화자산

이코 금강 발원지인 튼튼샘과 심무산을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아름다운 단풍과 역사가 어우러진 장수 마실길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과골서 맛보는 사과가 제 맛이지!

무주군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 성료

제29회 무주군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이 지난 27일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풍면이 주최하고 무풍면체육진흥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자매결연도시와 출향인, 주민 등 2천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된 행사는 체육 및 민속행사와 기념식, 특별공연 및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반딧불 사과 전시와 판매부스, 시식코너, 사과 포토존 등이 부대행사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는 박영식 씨(67세, 삼거리마을)와 하북이 씨(60세, 은일마을)가 준정부전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포장을, 이상분 씨(61세, 상하마을)와 최시명 씨(59세, 거제시), 심창호 씨(78세, 북리마을)가 면민의 장 효행장과 애향장, 봉사장을 각각 받았다. 무풍면 이장협의회 최경선 회장(60세, 오방마을)과 무풍면 체육진흥회 김준식 회

장(58세, 상덕마을)은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영호 면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무풍이 천하명당 심산지라는 명성에 걸 맞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면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반딧불사과의 고장 무풍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면민들 모두가 우리군 농업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풍발전, 나아가 우리군 발전을 위해 뛰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풍사과단지에서 열린 사과 따기 체험행사에도 올 봄 사과나무를 분양받았던 도시민들이 몰려 장관을 연출했다. 반딧불 사과와 주산지 무풍면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당도도 높고 맛이 좋아 대형마트나 농산물시장에서도 최상품으로 꼽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사과즙 등 가공품 유통표준코드 등록

무주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우선 생산하게 될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표준코드(GTIN-13)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반디퍼머스'라는 브랜드(9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의 '사과즙'과 '사과잼', '블루베리잼', '아로니아잼', '딸기잼' 등 5개 품목이며 사과즙 50봉/박스용의 물류바코드를 포함해 총 6개를 유통표준코드(GTIN-13)로 등록했다.
유통표준코드(GTIN-13)는 국내·외 유통·물류·제조업체에서 상품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코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하면 3년 회원 자격이 유지(이후 3년마다 회원자격 갱신)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하현진 강소농육성팀장은 "유통표준코드 등록을 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유통물류진흥원에 상품등록이 되기 때문에 각종 유통채널을 통한 검색이 가능해져 판매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개편 위한 정책포럼 열어

진안군은 최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개편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경화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마을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 준비를 위해 자체사업을 3단계로 진행하던 지원사업의 개념을 사후 운영관리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단계별 마을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역량 축적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우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은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이 운영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내공을 가진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별 마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한명재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 진안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될 것"이라며 "결국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안군의 존속을 유지하는 기대효

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평촌마을 이장은 최근 평촌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진안의 아이들이 진안의 어른들을 돌보는 연계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박추홍 정면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은 "진안의 다양한 동아리, 학부모, 자발적 모임들의 참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정화 중앙초 학부모회 회원은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진안에서 풍부한 것을 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경민 진안군 마을공동체팀 주무관은 단계별 마을지원사업의 주민교육과 지원 방안의 개편과 공동체활성화 지원의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며, "2020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방식이 전면 변경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은 "오늘 나온 제안과 의견을 진안군마을만들기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단계별 마을지원사업 개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승마장서 제1회 외승 승마 평가대회

제1회 외승 승마 대회가 지난 28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관계사 200여명, 승용마 70두가 참여한 가운데 장수 승마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마사회가 주관한 외승 승마(데저트 말) 평가대회는 2~7세 국내산 말 및 포니가 참가대상으로 프랑스 역용마 협회에서 말의 행동, 보행 및 체형 건전성, 품질 평가 등의 기준으로 순차평가 및 행동평가를 심사하는데 5세 이하의 말은 두 종류의 평가 모두 80점 이상 획득 시에 합격한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장수 승마장은 국내 실내 승마장 중 최고의 시설로 승마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군은 승마체험의 1번지로 승마레저파크(승마레저체험촌, 승마체험장, 장수승마장, 승마로드)를 조성해 승마의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을여행주간인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체험료를 50% 할인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